

# 미군 캠프타운 한국 여성에 대한 한 민족지적 연구: 일과 정체성\*

김미덕\*\*

목 차	
I. 서론	III. 일과 정체성
II. 현장노도	IV. 생애에 대한 한 해석
1. 기존 연구 경향	V. 요약과 결론
2. 현장에서의 발견	

**| 논문요약 |**

이 글의 목적은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미군 캠프타운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40-70대)의 삶을 분석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기술의 특징은 스스로를 성 노동자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일을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캠프타운에서의 생활(법적 결혼 포함)은 여성들이 거친 여러 비공식적, 임시적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부정적 호칭으로 자기정체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여성들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서, 동일시, 탈동일시, 무시, 적응 등 다양한 정체성 수행방식을 살펴보았다.

여성들은 빈곤, 캠프타운에서의 일, 파트너와의 긴장과 불화 등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는 여성들이 피해자로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응', '힘든 노동으로부터의 풍요로움', 그리고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청청함'이라는 언술들의 통찰에서 알 수 있는데, 예컨대 빈곤은 당연히 폭력이지만 동시에 인내와 회복의 가능성 또한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Kim 2009)의 4장을 보완한 것이며, 2013년 한국구술사학회 하계학술대회(한양대학교, 2013년 6월 9일)에서 발표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내재하고 있어 삶을 앞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캠프타운 여성에 대한 생애의 물신화 경향과 숙명론을 문제 제기하면서 지식의 정치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했다.

▪ 주제어: 미군 캠프타운 한국여성, 숙명론, 노동 경험, 노동계급으로의 탈/동일시와 적응, 고통-가난의 창조적 힘

## I. 서론

이 글은 미군 캠프타운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40-70대)의 생활과 생애에 대한 한 민족지적 연구이다. 1990년 이래 영어권과 한국 학계에서 군사주의와 젠더에 관한 연구가 확산되면서 미군 캠프타운에 대한 연구도 증가했다. 캠프타운 여성에 대한 연구는 미군 주둔, 군사주의, 젠더, 한국의 가부장제를 주제로 여러 수위의 논의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캠프타운 성 산업이 타락한 혹은 물질적 욕구에 추동된 여성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970년대의) 기지촌 정화운동, 특정 기지촌의 형성과 관리, 여성 신체에 대한 통제 등으로 양 국가의 교섭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Moon 1997; Enloe 2000). 2000년대에 들어서는 캠프타운과 관련된 여성의 생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가시화되었고(MBC 2003; Höhn & Moon 2010; 야마시타 영애 2012),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 여성을 대체한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해 주목하는(Cheng 2002; Yea 2004; Yea 2005) 한편 고통이 된 한국 여성들의 어려움 또한 강조되기 시작했다(SBS 2006).

이러한 성과의 다른 한편에서 캠프타운 여성의 생활과 생애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룬 연구가 드문 편이고,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강조나 성매매의 렌즈(만으)로 여성의 생애를 해석하려는 기존 연구 경향은 성 산업에 대한 제도화된 지식의 패턴으로서 캠프타운 여성의 입장과 시각이 잘 조명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

하고 있을까?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떤 연구 방법이 유용하며, 어떻게 어려움을 미화하지 않으며 사회의 불공정함을 비판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의식으로 출발했다.

이 글의 자료는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한 인터뷰 및 참여관찰과 문헌연구이다. 2006년과 2007년 8개월에 걸쳐 경기도의 세 캠프타운에서 현장연구를 수행했다. 중심 연구 참여자는 40-70대에 이르는 과거에 캠프타운 성 산업에 종사했던 한국 여성들이며 30여 명이다.<sup>1)</sup> 두 NGOs(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참여관찰하였고 연구 참여자들과 비공식·공식 인터뷰를 했다. 한 캠프타운의 경우 한 NGOs 소속의 연구원과 한 달 동안 공동으로 인터뷰를 수행했다. 대개의 참여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소수의 경우 자녀들이나 한국인 남편과 동거) 고령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 50-60대 여성들의 경우 가게 운영, 집수안내원, 일용직, 클럽에서 마마상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NGOs와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대부분의 지명은 불분명하게 기록했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연구 수행 시 목격한 바를 정리한다. 기존 연구를 성애의 물신화, 제도적 수위의 시각, 구술생애와 증언을 통한 자기말화 작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성매매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중·부정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목격을 살핀다. III장에서는 그 목격의 함의로서 여성들의 구술에서 드러나는 전 생애에 걸친 노동 경험에 주목한다. 캠프타운에서의 일, 결혼, 동거 등을 포함한 노동자, 여성, 빈곤의 삶이 주조한 정체성을 동일시, 탈동일시, 무시, 적응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다고 설명한다. IV장에서는 가장 많은 연구 참여자가 보인 노동자 계급의 동일시 과정으로서의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숙명론, 팔자, 한이라는 담론과 혼동되는 것인데, 이를 사회학자 스키킵스(Skeggs 1997)의 이론의 틀을 빌어 적응(adjustment)이라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빈곤과 노동의 결에서 파생하는

1) 언급했듯이 1990년대 중반 이래 이주 노동자들이 캠프타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현장연구 당시 이를 직접 목격하고 그들에 대한 인터뷰 또한 수행했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고 필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한국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중심 연구 참여자를 이주 노동자로 바꾸지는 않았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힘)의 가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V장은 결론으로서 요약으로 마무리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캠프타운에서 생활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삶을 꾸린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캠프타운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삶은 성매매와 외국 군인과의 관계에 맞춰져서 정체성 자체가 성애화된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이 개입한 정치적 피해자 담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담론은 여성의 삶에 대한 성찰과 해석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여성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 생애에 걸친 노동 경험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고령의 여성 노동자에게 주어진 숙명론, 팔자 담론과 달리 노동자 혹은 가장으로서의 일상적 삶, 가난/힘들 속에서 일상을 꾸리는 임파워먼트를 구현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 인터뷰와 구술 분석의 장점을 활용해, 주변부 사회그룹이 가시화될 때 허용되는 제도적 지식 패러다임 속에서 재현됨으로써 위계와 억압이 재생산되는 경향을 문제 제기하고자 한다.

## II. 현장노트

### 1. 기존 연구 경향

캠프타운 성 산업 종사 여성에 대한 논의는 1945년 이래 지속되었지만 학계에서의 논의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기와 내용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크게 성애의 물신화 경향, 제도적 수위의 시각, 그리고 캠프타운 여성의 자기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성애의 물신화를 보이는 연구는 성매매가 캠프타운 여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성애라는 렌즈를 통해 여성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향은 바로 아래에서 소수의 연구만 언급하였지만 국내외 성 산업 연구에서 나타난 가장 대중적이고 역사가 오래된 연구 경향이다. 한국 학계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도(주장이 다를지라도) 남녀 연구자 모두에게서 발견되며 이용인(1965), 이희숙(1992), 오

지연(1997)의 연구 등이 있다. 전자의 두 연구는 특정 캠프타운 여성들에 대한 서베이 방법을 수행하였고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성 산업 유입 동기, 과거 직업, 종교, 경제 문제, 가족의 지원 문제를 연구했다. 통계 자료 등 분석을 위한 서베이 방법이 눈에 띄고, 도덕적 평가가 내재된 윤락, 사치, 방종 등의 용어들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두드러진다(특히 1960-70년대 연구). 오지연(1997)은 여성들의 자기 인식과 삶을 개척하는 전략들을 분석하였으며, 여성주의 입장에서 성 산업으로의 유입, 어려움, 일에 대한 기술을 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기치촌 여성들은 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GI와 만나고 성적 관계에 대해 '즐긴다'고 했다. 이것은 심리적인 전략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들이 미군과의 관계를 '즐긴다'고 표현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정말로 ○○라고 부르는 방종한 여성들을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순결한 처녀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자신들이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분리능은 육체적으로 처녀가 아니라는 자기부정을 의미한다(오지연 1997, 71-76).

위 연구들의 중심 주장과 입장은 다르지만 서베이 연구 방법과 성 산업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주변부 사회그룹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가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이는 성애와 성매매가 영구적으로 여성들의 정체성·삶을 규정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고, 다이넬스(1984)가 정확하게 언급한 것처럼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은 일하는 장소나 그 이외의 다른 역할로부터는 정체성이 주어지지 않는다”(Daniels 1984, 1) 전제를 알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수위의 연구 경향으로서 넓게는 구조주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해 잘 알려진 정치학자 캐서린 문의 *Sex among Allies*(1997; 『동맹 속의 섹스』로 2002년 번역)가 대표적이고 이후 뢰른 문(Höhn & Moon 2010), 야마시타 영애(2012), 이나영(2007)의 연구

도 그 맥을 같이 한다. 1970년대 기치촌 정화운동 사례를 연구한 문은 정화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을 등록시키고 정기적인 성병 검진과 치료를 통한 격리 등을 통해 어떻게 국가 정책이 여성들의 일상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잘 살피고 있다(Moon 1997).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국가 정책을 살피으로써 과거 일개인의 사사화된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을 성매매 정책, 법,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역할 등과 같은 제도적 수위의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김미덕 2014b). 따라서 이 연구 경향은 여성주의 학계뿐만 아니라 캠프타운을 작동시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바람직하고 큰 기여를 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구에는 여성들의 삶과 인식에 대한 천착이 부재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조되면서 여성들이 국가에 의한 정치적 피해자라는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다. 국가 정책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이 정치적 피해자 담론은 과거 군사주의, 빈곤, 가부장제가 가해의 주체였던 것이 국가로 전환된 것일 뿐 여성의 입장과 시각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김미덕 2013c; 김미덕 2014a).

셋째, 생애사, 자서전, 증언을 통해 여성들 스스로가 직접 발화한 경향이고 이러한 자료를 통한 타자/연구자의 분석도 포함한다. 유철인의 연구(Yoo 1993)가 있고 이나영(2011)은 한 캠프타운 여성과의 인터뷰를 분석하면서 여성의 삶이 국가, 가족, 혈연의 경계가 넘나든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래 자서전, 구술생애사, 증언록 출간이 증가되었다(김연자 2005; 김정자·김현선 2013; 최현숙 2013).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 수가 적지만 2000년대 이래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 양식이 사회과학계에 확장되면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타자에 의한 재현이 아니라 당사자가 지식생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식의 인식론적 권위를 갖는다(김미덕 2013a; 김미덕 2014a). 바로 이 지식의 인식론적 권위 때문에 바람직하고 이러한 작업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애를 어떤 용어로 해석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살펴본 첫 두 연구 경향은 성 산업 연구의 가장 보편적이고 익숙한 지식 형태이다. 성매매로의 유입 과정과 유형을 포함한 성매매에 대한 기

술, 국가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성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에 대한 연구 또한 사회적으로 안전한 지식 형태로서, 주변부 사회그룹을 ‘구획하고 단 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진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 뿌리가 깊고 강력해서 미군과의 관계, 일생에 걸친 노동, 여성들의 삶을 좌우하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여성들이 캠프타운에서의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 후자의 증언, 구술생애를 바탕으로 한 2000년대의 경향은 사실 그러한 ‘드러냄’ 자체가 지식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김 미덕 2014a). 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성들의 생활과 자기인식을 ‘설명’하려는 것은 여성들의 생애를 서술함으로써 전제된(읽을 수 있는)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 이상의 해석이 필요하다.

## 2. 현장에서의 발견

여성들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은 어떠한가라는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기존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인터뷰와 참여관찰이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방법이다. 필자는 현장조사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발견했으며, 이는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생애에 대한 이해(III장)와 이에 대한 해석(IV장)을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첫째, 여성들의 구술에서 공통적이고 일관된 주제는 직업을 위해 끊임 없이 이동하기, 잦은 직업의 변화, 노동자로서의 역할(혹은 혼자 생계를 꾸린 가장으로서의 역할)이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생애를 구술할 때 성매매에 대한 언급을 삼갔으며 이 주제가 나왔을 때에도 자기방어나 합리화, 혹은 정반대로 사회적 낙인에서 기인한 부끄러움 등의 반응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삶을 성매매와 미군과의 생활로 요약하지 않고 현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어려움은 현재의 가정문제, 자녀양육,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었다.

첫 번째 내용은 정부 및 NGOs의 자료를 포함한 기존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으로 발견이라기보다는 익숙하고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들의 생애는 빈곤,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 캠프타운에서의 일과 힘들,

미군과의 관계, 자녀 문제, 의료 문제, 현재의 독거생활과 빈곤으로 압축된다(두레방 2005). 이는 빈곤과 가부장제의 피해자, 숙명론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를 ‘발견’이라는 한 이유는 그러한 생활에 대한 기술이 풍부할 뿐 이에 대한 해석과 이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들의 빈곤, 노동 환경의 어려움, 성매매와 관련된 사실이 분석과 이론의 자원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나치게 자연화되어’ 있어 여성의 삶, 정체성, 자기 이해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 없는 서술이 재생산되고, 공감 전략의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은 인류학 연구에서 민족지적 감수성(ethnographic sensibility)으로 불리는 것이다. 인터뷰나 참여관찰 당시 연구 참여자의 태도와 느낌은 질적인 내용으로서 이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연구자가 갖는 고유한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기 힘들다. 그런데 실제 현장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자의 목격 행위는 이론과 설명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sup>2)</sup>

연구 참여자들이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삼갔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으며 그 원인들이 중첩되어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현재 캠프타운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성 산업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를 이해하는 데 작용한 시간의 긍정적·적극적 역할, (다양한 이유에 따른) 인터뷰에 대한 의도적인 통제, 외국 군인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다양한 입장, 그리고 숙명론으로 혼동되는, 어려움 속에서 재구성하는 인내와 고통, 여기서 발생하는 임파워먼트 등이 있다(아래 IV장).

시간의 적극적 역할(때론 긍정적 역할과 함께)이라는 것은 시간이 자동적으로 과거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치료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 시간은 사람들에게 과거를 새롭거나 긍정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간은 순수히 재현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관계에 효과를 끼

2) 인류학 연구에서 참여관찰과 인터뷰 자체의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이론 생산을 위한 유용한 출발점은 연구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뜻밖의 혹은 당혹스러운 발견이다. 기존 연구와 다른 발견은 낯설, 놀라움, 이론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쉽게 간과되고,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인류학적 연구에서 이러한 낯설 자체가 이론의 자원이며 기존 연구와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Schwartz-Shea & Yanow(2012) 논의 참조.

치는 행위 주체로서, 관계를 해석하고 새롭게 쓰고 구성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Das 2007).<sup>3)</sup> 그리고 현재 클럽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실제적인 상황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은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이주여성들의 서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 데서 알 수 있다. 달리 말해 이들의 경험은 집중적으로 젠더화, 성애화된 생활로서, 이는 한국 여성들이 과거에 겪었던 것이기도 하다. 즉 이주여성의 현재의 삶은 클럽에서 바텐더나 댄서로 일하기, 도주하거나 다른 직업 구하기, 미군과의 관계 유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송환, 다른 국가로의 또 다른 이주로 압축된다(두레방 2007; Yea 2004; Yea 2005). 많은 이주여성이 클럽에서 일을 하고 고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서사는 주로 미군 남자친구나 파트너와의 경제적, 감정적, 상징적 자원에 대한 논의가 많다. 관련 NGOs의 한 한국인 여성 스태프는 이러한 이주여성의 삶을 이와 같이 표현하였다. “기지촌은 러브 공화국이에요, 어떤 게임이 여기를 통제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데이트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한

3) 이 언술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의 함의를 잘 설명하고 있는 박완서의 소설로 부연하고자 한다. 그녀의 1977년 작품인 “저 살벌했던 날의 할머꽃”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 군인과 성매매를 하는 두 명의 노파가 주인공인데 모두 작가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두 번째 노파의 이야기에서 시간의 적극적인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쟁 당시 수총각에만 총알이 박힌다는 설이 있었고 한 군인이 얼마 전에 남편이 죽은 한 노파와 관계를 맺게 된다. 그가 집을 나서려 할 때 할머니는 ‘또 와요’ 하며 얼굴에 회열과 만족감을 보인다. 군인은 얼마 전에 남편을 묻고도 육망을 보이는 할머니에게 불결감과 혐오감에 사로잡히고 이는 여성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후 별 생각 없이 남성으로서 방탕한 생활을 한다. 시간이 흘러 그 군인은 가족을 꾸리고 방탕에 몸이 쇠약해지는데 다음과 같이 할머니의 행위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아마도 그 메마른 몸이 육체적으로 만족을 했다고보다는, 그 만족과 회열은 자기의 성이 아직도 남성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순전히 정신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또 수 많은 날이 가고, 오십 무렵이 되어 다시 한 번 생각이 바뀌게 된다. 노파의 행위가 말로 무의식적인 휴머니즘이 아니었던가라고, 여기에서 필자가 흥미롭게 본 부분은 이때 시간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군인이 할머니의 행위를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의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자신의 일상적 관계들, 결혼, 나이가 들에 따른 육체적 쇠락, 심지어 방탕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통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발견/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완서는 소설의 맨 마지막에, 남성 주인공의 입을 빌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끝맺는데 시간의 적극성과 그 함의를 정확하게, 잘 말하고 있다(박완서 1999[1977]; 김미덕 2007, 34).

국인이고 한국에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요, 내가 데이트를 하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물론 사랑에 대한 실현의 아픔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주여성이) 어떤 사람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넘어셔요”(인터뷰 2007년 6월). 또한 인터뷰상의 통제 전략과도 혼동할 수 있다. 인터뷰 당시 몇몇 여성은 필자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타자가 자신을 재현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매매와 관련하여 대중적으로 소통되는 논의들만 간략하게 인터뷰 내용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Kim 2009; 김미덕 2013c). 이러한 경우들은 인터뷰의 거절 혹은 전략적 통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고, 이는 성매매에 대한 (공·부정의) 자기 검열식의 반응 자체가 없는 것과 다르다는 것 또한 무리 없이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장연구를 통한 여성들의 구술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주제는 성매매나 외국 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상에 걸친 여러 직업의 다양한 노동 경험’이었다.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 행위였고 캠프타운에서의 성매매가 그녀들의 전 생애에 걸친 많은 임시, 비공식적 일의 연속선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따라서 어떻게 캠프타운으로 오게 되었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고 혹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강조보다는 ‘일련의 점진적인 연속선상’에서 자신들의 생애를 정리하였고 이는 캠프타운에서의 미군과의 관계나 성매매만의 렌즈를 통해서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제 노동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구술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정체성’ 문제와 필연적으로 관계된 것으로서, 후술하고 있는 여성들이 왜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사회적 호명에 동의시(방어적으로 옹호)나 반동일시(반감)의 대응을 하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빈곤과 고령이 가세하여 대중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팔자나 희생자 담론 또한 피상적인 해석임을 밝혀준다. 연구자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들이나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서술하기 쉽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이들을 형상하는 것은 그보다 수월한 경향이 있다. 그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정의를 고민하는 학문공동체에서 폭력, 가부장제, 억압, 고통, 공감 등의 언술이 매우 자연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언술은 대개 타자, 주변부 사회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자 자신이나 특권 그룹이 잘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식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여성들의 삶을 전 생애에 걸친 노동의 관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체성 수행의 양식을 살펴본 후, 생애와 생활에 대한 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III. 일과 정체성

자신의 일을 설명하고 이해·정리하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젠더화된 노동과 이에 대한 자기정체화의 다양한 양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성들의 구술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조건과 다양한 노동 경험은 이러했다. 성매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 산업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한국전쟁, 경제적 빈곤, 개인적 수위에서의 위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는 여성들의 선택 가능성이 높은 일 중의 하나였다. 6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여성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역사적 사건은 미군 주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한국전쟁이었고, 이것은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직업의 기회를 낳았다. 이 여성들은 소위 2세대 군사화된 성매매 세대인데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 걸, 커피 걸, 미용사, 청소부 등으로 일했다(『조선일보』 1962/08/15).<sup>4)</sup> 그리고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여성들의 경우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빈곤이었다. 구체적으로 캠프타운에서 일하게 된 계기로는 경제적 빈곤, 결혼생활의 어려움, 가족 구성원이나 연인과의 문제와 같은 개인 수위에서의 위기, 어머니 직업인 경우, 인신매매, 사기, 그리고 간혹 우연<sup>5)</sup>도 있다. 사회적/역사

4) 이임하(2004)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노동 참여의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잘 정리하였다. 농업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후 여성노동의 범주는 행상이나 좌판 등의 영세 상업이나 도시의 비대화로 인한 서비스업, 가사노동의 연장인 샵바느질과 식모살이, 꾸준한 성장을 보인 방직 공장 여공 등으로 확대되었다(이임하 2004, 99; I. Lee 2006).

5) 예컨대 54세의 한 여성은 경제적 빈곤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었다. 한동안 식모

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수위에서의 위기와 빈곤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유사했다(이임하 2004; 이희숙 1991; 오지연 1997).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부연 및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개의 여성이 캠프타운에서 일하게 된 것이 정황적이고 점진적이라는 점이다(Walkowitz 1980, 13-15). 즉 “이성의 실제적이고 보완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다시 말해 삶의 가능성들을 절대적인 확실함을 갖지 않고 열어둔다면”(Toulmin 2001) 캠프타운에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실제로 그렇게 ‘상호배타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 군인과의 관계만 강조되는 인식과 달리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았는데, 연구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20여 명) 이들이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한국인 남성 파트너를 떠난 상태였다. 이유는 남편의 외도, 폭력,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고픈 여성들의 욕구 때문이었다. 파트너가 미국 국민만이고 결혼과 무관한 혹은 반대되는 일로서의 성매매라는 대중적인 인식과는 다른 발견이었는데, 이 또한 외국 군인과 한국 여성의 관계에만 초점을 둔 민족주의 담론과 결혼과 성매매의 이분법적 담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캠프타운에서 일하게 된 경로는 안면 있는 사람의 소개, 직업소개소, 광고, 노골적인 인신매매 등이 있다. 캠프타운 클럽에서 20여 년간 디스크 자키로 일한 김석하(1991)에 의하면 당시 98%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광고를 통해 캠프타운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직업소개소 또한(한 연구 참여자의 표현으로) “인적 자원이 없고 고학력이 아닌” 여성들에게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었다.

그런데 집을 떠나기 전 대부분의 여성들은 집에서 집안일을 돕거나 농사일을 했다. 집을 떠나는 것은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여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 일생에 걸쳐 여러 형태의 저임금의 노동을 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식모, 아이보게, 공장 노

와 버스 차장으로 일했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캠프타운에 놀러갔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친구는 사라지고 그녀 혼자 집에 남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포주였던 집주인이 방세를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돈이 없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 이것이 그녀가 캠프타운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였다. 그녀 친구가 일부러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그냥 그렇게 일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동, 버스 차장, 유흥업소에서의 서빙 등이었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성 산업에서 일을 하기 전 가장 보편적인 일은 식모와 제조업 공장에서의 일이었는데 모두 매우 힘들고 저임금이었던 것이 특징이다(Cronstadt & Tove 1978). 식모나 아이보게는 여성들이 구할 수 있었던 쉬운 일 중의 하나였는데, 저임금과 주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장시간의 일, 성적 폭력과 같은 어려움에 노출되었다.

캠프타운에서 일하는 동안, 대부분의 경우 포주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평균적으로 1-2달이나 1년에서 3년간에 걸쳐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했다. 여기에는 결혼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의 형태는 클럽에서의 웨이트리스, 프리랜서, 미군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결혼 포함)이 있고, 대체로 전 생애에 걸쳐 이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몇 경우 미군과 법적으로 결혼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장연구 당시 미군과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옥선(61세)은 캠프타운에 올 때가 35세였으며 5년간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 10여 년간 한국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그녀는 부정한 남편을 떠나 일 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이 너무 적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서울에서는 양말 공장에 다녔어요. (필자: 일이 어떠셨어요?) 아휴 힘들지 그때만 해도, 양말도 나오고 장갑도 나오고 그런테서 실밥 따 놓고, 싸 놓고 박스에다 놓고, 1년 정도 일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기숙사 같은 데서. 너무 월급이 박해. 한 달에 그때만 해도 3만원인가 됐나봐. 3만원 갖고 뭐 해, 한창 때니까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도 안 사 입었지, 남 주는 것 빨아서 입고 그런 식으로 살았지, 당시는 월급이 세지 않았잖아. 3만원 준다 해도 그 집에서는 많이 준 거야, 3만원이 뭐야 3만원이... 서울서 탄 데서 살다가 누가 소개를 해서 이 ○○(캠프타운)이란 동네에 왔지, 처음에 내가 돈 있는 것 갖고 왔지, 와서 빚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보증금은 그때만 해도 없으니까. 보증금은 없고 월세로 얼마나 얼마씩 내고 그 정도로 살고 그랬어요. 여기서 살면서 미군하고 재미를 못 봤어(별다른 일이 없었어, 돈을 많이 벌었거나 국제결혼을 해서 이민을 감). 당시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적은 돈을 갖고 캠프타운에 왔고 1년간 한 미군과 동거를 했는데 그가 미국으로 같이 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가 아니었고 저학력에서 오는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그 청을 거절했다.

내가 학교를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고생을 덜 하잖아, 일자무식이 (미국에) 가 갖고서는 고생하고 또 쫓겨나고... 아,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결혼하자고 해도... (미국으로 갈 수가 없었어) 미국에 가서 어느 정도 간판도 보고 읽고 그래야지, 배우지도 못하고 그 먼데 가서 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뭣 하러 가요 내가? 내가 스스로 생각했지. 나는 아니다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혼도 안 돼 있다, 너 좋은 사람 있으면 갈 때까지 좋게 지내다가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한 10달인가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다가 보냈지.

그리고 캠프타운에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런 데 와보니깐, 남편하고 전에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이란 게 살다보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돈 벌기 위해서 (상황이) 뒤바뀌니까 그럴 수도 있더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성격에는 이런 ○○(캠프타운)에서는 나하고는 맞지를 않아. 아무리 봐도, 그냥 미군들이 돈 조금 주고 말아야, 그냥 데리고 오면 무조건 나는 내쫓았어. 내 손해 보는 일은 나는 안 했어요, 아 이게 아니다 싶어서 5년 동안 하다가 그냥 차버렸어요(그만뒀어요).

이후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지냈고 가정부로도 일을 했다. 그런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만두게 되었고 인터뷰 당시 일을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고 있었다.

지방이 고향이었던 박상희(43세)는 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방에서 허드렛일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언니와 형부가 그녀 때문에 싸우는 소리를 듣고 그 길로 언니의 집을 뛰쳐나

왔다. 당시 16세였는데 일을 한 첫 장소가 한국 군부대 근처였고 도망을 쳤다가 붙들려 1972년 미군 캠프타운으로 오게 되었다. 일을 하는 동안 채무 속박체계(Debt Bondage System)<sup>6)</sup>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마도 임금이 80달러였나봐, 근데 칩대비, 소개비 등이 있었으니까... 아니 그보다 적었다, 뭐 계산할 수도 없었다. 80달러 벌면 집세하고 음식 값으로 반이 갔으니까.” 이 시스템 때문에 나이가 들어 빚은 여전히 있었지만 클럽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클럽에 빚은 있는데 거기 인제 막 음악 소리는 팽팡하지 자신은 없지, 도저히 거기에 호응을 못하는데(적응을 못 하고 있는데), 맨날 걱정한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그때 우울증이었나봐요. 막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들더라고요... 환상이 보이고 그러거든요? 빚 때문에 저거하니까(힘들어하니까), 애(인터뷰에 동석했으며 과거 캠프타운에서 일했던 친구)가 그럼 내가 보증해서 빚, 그거 돈 얻어줄 테니까 나오면 괜찮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실적 부담이) 가볍지. 괜찮겠다고 그래서 애가 보증서서, 그때 빚 갚아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현상이(노이로제) ‘씩’ 없어진 거예요. 돈 쥐야지 거기 일은 해야지 그게 (적응이) 안되니까는 막... (힘들었던 거지) 그러다 인제 스토어(식당)에 다녔죠. 손님은 없는데, 거긴 적응이 되더라고, 여긴(클럽) 막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음악은 팽팡하고 도저히 적응이 안돼, 그러니까 착한 애(미군) 만나가지고 좀 살았죠.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같이 일하던 가까운 친구의 도움으로 일을 그만두었다. 이후 여러 식당과 캠프타운 근처의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인터뷰 얼마 전 한국 남성과 결혼했고 마사지 파홀러에서 접수받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때 클럽에서 일을 한 여성들은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미군과 장기적

6) 포주(클럽 사장이나 하숙 주인)가 방세, 식모세, 식대, 연탄값, 술세, 칩대세, 이불세 등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뜻한다(서병욱 1985, 614).

인 관계에 있거나(국제결혼 포함) 혹은 클럽에서 마담이나 매니저로 일한다. 나이가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일이 마마상(mamasang)인데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주로 이 일을 한다. 마마상은 음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고 클럽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럽주인과의 중간 관리자로서 이주여성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두레방 2007, 연분홍치마 2005). 참여자 중에서 두 명이 마마상으로 일하고 있었고, 인터뷰 얼마 전까지도 일을 했던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여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캠프타운에 있는 가게나 식당에서 일하거나, 클럽 안팎에서 꽃을 팔기도 하고, 낚시판이, 공공근로 등 다양한 노동을 했다. 남정길(54세)은 어머니가 직접 캠프타운의 클럽에 그녀를 데리고 왔다. 당시 16세였는데, 그 전에는 10살까지 식모로 일을 했고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일생 동안 많은 (임시적인) 직업을 가졌다.

기억이 안 나네. 33, 34살까지 일을 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빵 가게, 빵 같은 거 팔고, 수박 팔고, 호프집에 종업원으로도 일했었고 야식집에서도... 이것저것 도둑질만 빼 놓고 다 해 봤네 골고루. 인제 나는 일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 인제 나는. 너무 많이 해서. 고생 무척 많이 했어 나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 살이 할 적에 그때는, ‘어휴’ 식모라는, 식모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무서하는 뜻이거든. 구박을 무진장하게 받았지 내가, 어린 나이에.

그녀는 클럽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두 번째 미국인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빈곤을 겪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다시 클럽에서 일하게 되었다. 인터뷰 당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건강이 약화되면서 한 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종교를 갖게 되면서 자신을 맨 처음 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거둘 수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일생에 걸쳐 여러 노동과 다양한 층위의 관계를 경험한다. 언급했듯이 여기에는 일시적·장기적 동거와 법적 결혼까지도 포함한다. 노동의 경우 캠프타운에서 일을 그만 둔 경우에도 여성들은 다



양한 비공식적 경제행위를 했고 대부분 저임금의 임시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성매매에 대한 언급을 삼갔던 것은 자신들의 일생에 걸친 다양한 일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으로 그것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그렇다고 부정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얼핏 보기에 매우 상식적인 이 발견은 언급했듯이 정체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하는 '사실'이다. 미군과의 관계에서 법적 결혼을 포함하기도 하고, 여러 임시적인 노동의 형태 속에서 자리매김한 캠프타운에서의 일을 통해 자신을 성 노동자라도, 혹은 사회적 낙인이 담긴 여러 호칭으로 정체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개념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Fernandes 2003; Hall 1996; Minh-ha 1989; Minh-ha 2009; Radhakrishnan 1994; Skeggs 1997). 여러 개념 중에서 중범위 수준에서 정의한 스키프스케에 의하면, 정체성은 계급이 이분화되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사회 지위의 재현(reflections)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본질적인 범주도 아니며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과정이다(Skeggs 1997, 25). 연구 참여자들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노동계급으로서의 적극적인 동일시, 탈동일시, 그리고 적응 양식을 보였다(Skeggs 1997).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부연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사회 호칭에 대한 긍·부정의 가치평가도 없었지만 동시에 나는 노동자라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를 노동자로서의 경험으로 범주화한 것은 다음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먼저 여성들의 캠프타운의 일이나 삶은 힘들지만 탈성애화된 개념으로서 노동을 상징함으로써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다. 즉 성 산업 논쟁의 중요한 축인 성과 노동의 이분법에서 노동으로서의 성매매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남성 노동자는 영웅, 혁명 등의 서사 속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여성 노동자는 중산계급과의 구별 속에서 성애화되어 있고 무책임, 타락 등의 맥락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Skeggs 1997). 따라서 여성 노동자와 관련된 가치판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노동자라는 범주를 활용한 까닭은 객관적으로 여성들의 교육상황, 경제적 여건, 문화자본 등이 전형적인 노동계급

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젠더화된 노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지촌 여성'이라는 호칭 아래 피상적으로 이해되는 여성들의 삶이 실제로 개인의 성격, 현재의 조건, 삶에 대한 자기 인식/평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40대 중반의 김동숙의 서사는 노동계급에 대한 적극적 동일시를 보이고 있다. 그녀는 다섯 자매와 막내 남동생을 두었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남동생만을 편애했다. 10살에 집을 나와서 식모로 일을 하다 캠프타운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거의 3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식사를 매일 쟁겼는데, 그 일이 너무 지루했고 나중에 한 미군과 동거를 했다. 그녀는 폭음으로 근처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었는데 인터뷰 당시 혼자 지내고 있었다. 1997년 우연한 기회에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가족을 찾게 되었고, 그녀의 표현으로 "가족을 만나기 전 거칠게 살았는데 가족을 만난 후에 미래를 꿈꾸고 오래 살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이와 같이 간략하게 자신의 생애를 요약하였고 다음의 두 에피소드만을 들려주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는데, 대화 도중 상가라는 단어가 나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자 대화가 끊겼고 이후 어머니로부터 남동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가리켜 그린 곳이 사람 사는 곳이냐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면 그럼 내가 소나 폐지란 말인가, 그렇게 사는 것도 사람 사는 것이라고" 반문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는 그녀의 율케와의 첫 만남이었다. 율케를 처음 만났을 때 율케가 그녀를 형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을 보고, '나를 본적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자신은 그녀를 '어보세요'라고 불렀다고 했다. 사회관습과 법적 관계에서 형님이라는 호칭은 틀리지 않지만 김동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것이 위선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히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한 언니만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과 연락을 끊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유산을 외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 모든 형제의 포기각서가 필요해 본인의 호적 관련 서류를 떼어갔고, 큰언니가 너무 서운케 생각 말라고 하며 살아생전

부모님이 그 아들만 위했으니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동숙의 서사가 필자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매우 표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노동계급으로 동일시한 극소수의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자와 이 이야기(올케의 위선에 대한 지적)를 나누었을 때, 그 스텝은 김동숙이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시기'라고 해석했다. 필자는 그 NGOs 관계자 자신의 (무의식적) 중산계급으로서의 동일시가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는데, 그녀의 중산계급으로서의 자연스런 동일시는 정형화된 노동계급에 대한 다른 해석과 상상의 부재를 낳았다고 본다. 즉 노동계급 여성은 항상 '부족을 느끼고', 빈곤한 사람이 빈자이자 노동계급으로 자신을 정체화할 수 있다는 해석을 차단했던 것이다. 대중적인 인식을 가능해보면, 김동숙의 올케에 대한 반응은 '기질고' '경망스러운 태도'로 해석되고 이것은 공동연구원의 전체처럼 노동계급 여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담고 있는 기도 하다.

강선애(70대)의 구술 또한 다른 참여자들과 달랐는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비쳤고 탈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노동계급성을 보인 매우 드문 경우였다. 그녀의 구술은 한국전쟁 전 일 년의 결혼생활 동안에 자신이 겪었던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남편) 누나들이 난리를 한 태도 소용없어. 1년을 죽을 만큼 맞았지요. 그래서 그 전에 내 몸뚱이가 아프고 그러면은 동생들이 그랬어요. 매 너무 두드려 패서 골병들어서 그렇다고. 자꾸 아프다고, 내 매 맞은 것 말도 마, 그래서 내가 남자라면 징그럽고 무서워, 그래서 내가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혼자 살잖아.

내 열아홉에 6.25가 났어, 어떻게 됐겠는가 생각을 해봐. 우리 작은 놈(동생)이 4살이야, 6.25 나가지고 먹을 것 있어? 모아 놓은 돈 있어? 없지, 맨날 우겨지 주우러 갔어요, 막 땡땡 싸대고 그 전에 멍기 기 무시웠어요, 내가 ○○○ 시장에서 장사 한 사람이야, 채소 장사, 별 거 다 했어요, 부침개 팔고 ○○○에서.

구술에 나온 것처럼 17세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괴롭혀서 일 년 후에 친정으로 돌아왔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가진 다양한 직업 이외에, 그녀의 서사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평생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는가를 일관되게 서술했다는 점이다. 고통을 주우러 다닐 때 사람들의 무시하는 눈빛과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혼자 사니까 깔보고 돈을 안 내준다(안 갚는다)... 한 달에 정부에서 돈 35만원 줘요. 그러려고 늙을 때까지 일을 했지...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에 친지야... (어떤 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20년을 기다렸는데 더 참으래, 그래봐야 지 자식들한테 안 좋아... 머슴아 요만할 때 빌려가지고 왔는데 군대 다녀왔어... 그러니까 맨날 서방이 바람이 나서 지하고 안 살지.

그 이외에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고상한 사람인가를 강조했다. 많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은 것과 달리, 강선애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그녀의 태도는 전형적인 탈동일시를 통한 동일시를 보인 것인데, 예를 들면 '나는 노동자다'라는 전통적인 인정의 형태가 아닌 노동자 계급으로 인정되기를 거부함으로써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스케그스(1997)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정을 받기 위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인정을 거부하는 양식도 있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재현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노동자 계급이라는 라벨은 더럽고, 위험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를 함의한다. 따라서 잘 보살피고 책임감 있고, 정숙한(respectable) 계급이라는 주장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끊임없이 존재한다."(Skeggs 1997, 74).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을 부정적인 명칭이나 성 노동자, 혹은 주스 걸(juicy girl), 드링크 걸(drinky girl), 클럽 걸이라는 호칭보다 엔터테이너(entertainer)로 규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백재희 2000; 백재희 2003).

정리하면 인터뷰와 생애사를 통해 살펴본 여성들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은 전 생애에 걸쳐 법적 결혼을 포

함한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갖고 있다. 둘째, 아구스틴(2005)이 언급한 것처럼 생애의 한 부분에서 느끼는 상대적 무력함이 영구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 또한 항상 다른 삶의 국면, 욕구, 프로젝트로서 생애 속에서 변화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다(Agustín 2005, 226). 그 구성방식에도 동일시, 탈동일시, 무시 등 다양한 형식이 있다(Skeggs 2007). 셋째, 따라서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생애, 성매매라는 상황이 여성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기준과 삶에 대한 이해의 본질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체성 개념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나를 설명하고 규정하는 여러 변수들, 예컨대 성별, 연령, 국적, 학력, 계급 등의 외과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영적 자아로까지 해석되는 것으로서(Minh-ha 1989; Minh-ha 2009), 경험과 자아의 관계를 통한 정체성 자체의 구성 과정은 늘 변화하는 것이다(물론 이는 주변부 사회그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넷째, 동일시를 통해 정체성과 자신의 생애를 이해할 때에도 그 동일시가 성매매를 통해서라기보다 노동 경험의 연계(association)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계급적 동일시와 성매매 일과의 동일시를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 경험에만 고정하여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제한된 접근은 애초에 여성들의 노동계급으로서의 동일시 과정을 상상하기 어렵게 한다. 90년대 말 의정부 캠프타운 여성들을 연구한 오지연(1997)은 “거친 운명을 통해 정상적인 여성보다 더욱 성숙하게 되었다.”는 한 인터뷰를 해석하면서, 여성들이 (불우한) 운명을 합리화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해 정상적인 여성들과 자신들을 구분한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필자의 현장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사회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여성의 삶과 자신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자기 위안이나 합리화라기보다는 노동계급으로서의 동일시, 탈동일시, 다음 장에서 살필 적응 등을 통해 소위 정상적인 여성의 삶과 자신의 삶과의 ‘비교’ 자체를 하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 그러한 비교 자체가 이미 무의미한 것을 인식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 IV. 생애에 대한 한 해석

일생에 걸친 노동 경험의 연속이라는 사실과 함께, 여성들이 성매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삼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들의 전 생애 혹은 과거에 대한 인정으로서 스케그스의 표현으로는 적응(adjustment)에 해당한다. 영어 번역으로 적응이라는 단어가 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과거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인정, 수용, 재해석 또한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이를 가능케 하는 동력은 여성주의자 마리아 미즈와 베로니카 벤홀트-툼슨의 ‘힘든 노동으로부터의 풍요로움(abundance of hard labor)’(Mies & Veronika 1999), 소설가 박완서의 ‘소명으로서의 가난’(1999[1975])이라는 개념이 주는 통찰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필자가 (박완서와 비나 다스의 통찰에 힘입어) 정리한 ‘고통의 다스림(domestication of suffering)’(2007)도 포함한다. 또한 시간의 적극적·긍정적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각주 3번 참고). 이 일련의 개념은 숙명론, 한, 팔자, 체념 등의 용어와 유사하다(조해일 1995; Yoo 1993). 습관과 결합된 숙명론(Nussbaum 1988)은 캠프타운의 여성이 고령화되고 탈성애화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로 많은 고령의 연구 참여자는 “내가 본래 운 없이 태어났어,” “다 내 팔자야,” “사람마다 다 제 운명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혹은 “시절을 잘못 타고 났어”라고 말했다. 최강순(60대 후반)은 자신의 생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나는 돈은 좀 벌었어, 난 그런데 있는 게 아닌가 봐, 팀도 받고 애인도 하나씩 있고 그랬어...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안 붙어, 팔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만신 팔자’라고들 해, 서방이 놀고먹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팔자라는 것이 있어... 내 팔자가 안 좋으니까 툭툭한 사람하고 (결혼) 해야지, 시시한 사람하고 해서 (뉘해)... 한국 사람 만나서 다 잘 사는 것 아니고 미국 사람 만나서 다 잘사는 것 아니잖아... 그래도 괴롭히는 사람 없고 아프지만 앓으면 되지. 돈 벌 욕심이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것(정부보조금)만 먹고 아프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보니까 팔자라는 게 있어, 가만히 보면, 나 아는 사람들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 따라가고 딸은 엄마 따라가고...

앞에서 언급했던 이옥선도 인터뷰 초반에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했다.

집을 나와서 그때만 해도 나이가 젊으니까, 내가 여기 35살에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중매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한번 (한국) 남자한테 데어갖고(결혼을 했으나 외도로 집을 나오게 되어) 싫더라고, 난 남자가 싫어. 아니 처음에 단추가 똑바로 꿰어야지 그치? 그래야 끝까지 행복하잖아요? 아, 단추가 비뚤게 달아졌는데 또 가면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나는 내가 판단할 때는, 나는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으니까 가도 그 팔자구나. 나는 팔자가 이러니까 이렇게니 하고 살아야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옛날 생각하면 뭐해, 지나간 것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서사는 숙명이나 체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팔자라고 '발화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과정이나 적극성(initiative) 없이 한 생을 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인류학자 베하(Behar)가 이 점을 잘 지적한 바 있다. "독자들은 전기문에서 생애사가 인터뷰이의 삶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한다. 즉 전기문이 인터뷰이의 삶과 등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기문은 자기 재현의 픽션, 즉 말하기에서 만들어진 자기재현 방식은 현재의 성격/인물이 무질서한 자신의 과거 삶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한 과거이다. '실제로 텍스트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인류학자에게 인터뷰이가 주는 자기 구성적 버전이다.'"(Behar 1993, 225-226; 강조는 인용자). 게다가 발화에 숨어 있는 발화되지 않는 다양한 의미/뉘앙스를 활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고령 여성들의 경우에, 일생의 서사가 평면적으로 발화·구성되기 때문에 감정적 굴곡과 상태가 나타나기 쉽지 않고 결국 그들의 삶 전체가 피상적으로 요약된다. 이는 인터뷰이들도, 그 발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해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발화한 언술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활자로 표현하기 어려

운 인터뷰, 구술, 대화의 결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예컨대 팔자를 언급했던 한 여성은 '팔자야'라는 언술 뒤에 이렇게 덧붙였다. "내 팔자야. 근데 도둑질 말고는 다 하라고 했잖아."라고 부연했고, 또 어떤 이는 "나는 내 운명대로 살았어, 나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다했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후회도 없고 외롭지도 않아."라고 정리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최강순에게 공동 연구원이 자녀들 둔 여성들이 부럽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식 있는 거 부럽지 않아, 못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 봐, 부모가 자기 자식 하고 싶은 것을 못 해주는 것. 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왜 남 가슴 아프게 하나, 주어진 인생이니까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된 전 생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필자는 연구 참여자의 과거를 '재미가 있었다', '힘이 들었다', '지긋지긋하다' 등의 간략한 언술을 통해 생활의 매 국면에서 나오는 기쁨과 고통의 질감을 현재의 타자(연구자)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일을 단순화하기 어려운 재구성의 문제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정의 문제로서 연구 참여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힘들기 때문이다(Narayan 1988; 김미덕 2013b). 이러한 근원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필자는 숙명론과 팔자로 여성들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타자화된 시선이자 피상적인 이해로 보고 이에 대한 한 대안적 해석을 제안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살피기 위해 먼저 한 여성의 생애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숙희(48년생)는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자신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설명한 이였다. 물론 내용과 사건의 전개가 완벽하지는 않았고, 구술의 특징 다시 말해 참여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만을 구술하는 정황 또한 인지해야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숙희는 〇〇이 고향으로 9살 이후 근처 부잣집에서 아기보개로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 셋을 먼저 보내고 실의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할머니의 권유로 집을 떠나 식모로 일했다. 15살 무렵 물동이를

깨뜨린 사소한 일 때문에 일하던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집을 거치면서 식모 일을 했다. 어린 시절에 성적 폭력에 노출되었는데 다 음과 같이 언급했다. “못 배우고 못 살아서 사회에 나오면 인간한테 버림을 받아, 왜 그러냐 하면 난 그걸 안 잊어먹어... 그래, 그런 억눌림이 그 게 있어 참 우리가 못 배우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거야)” 처음 일 한 장소는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술집이었는데 얼마 지 나지 않아, 근처 캠프타운의 한 지역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고 흑인 군 인만을 상대하는 클럽에서 일을 했다. 이후 그녀는 여러 캠프타운을 거치 면서 미군을 따라, 혹은 스스로 일을 찾아 계속 이동하게 된다. 구술의 내용은 클럽에서의 일(술과 해피스모크 중독, 빗 문제, 프리랜서로 일할 때의 어려움 등), 미군과의 동거, 한국 남성과의 결혼, 두 명의 자녀 출산, 술집 경영, 나이가 더 들어 2007년 두어 해 전까지 술집에서의 웨이트레 스로서의 일, 최근의 건물 청소 노동이었다.

이제 내가 거기에서(한 캠프타운에서) 미군을 만났어... 그때 내 나 이가 한 스물 한, 두세 살 먹었나 봐.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근 데 그때는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하기도 힘들고 아주 나빠, 그런 시절 이거든. 이 미군이 어디로 갔냐 하면 부평이라는 델 전근을 갔어. 내 가 부평을 따라 갔어... 한 사람을 만나면 갈 때까지 동거를 하는 거 야, 동거를 안 하면 국제결혼을 하는 거고, 부평에서 일본 사람이 지 은 집이라는데 독채를 얻었어, 방 두 개, 큰 마루 거실 부엌도 있고 펜্স더라고. 마당도 넓고, 하여튼 가격이 맞았으니까 얻었겠지? 그걸 얻어가지고 내가 그 앞에다가 모래사장도 만들고 꽃밭 만들고 벽돌 네모짜리 만들어서 길 만들고 그랬어, 독채데...

이후 다시 ○○의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미군과 오랜 기간 동거를 했고 아이를 출산했다.

어떡하다 ○○에 왔어, 그때까지 홀몸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잖아. 송 탄으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숙집이 옛날 포주집인데 거 기 들어가서... 밤이면 나가고 참 우리 삶이 그게 비참해, 밤에 나가는

자체가, 꼭 그냥 소가 안 죽을라고 팔러가는 거지 뭐, 이런 그 심정이 아주 나빠. 그래가지고 내가 돈 잘 벌고 하면 (하숙집) 아줌마한테 용 돈 한 4-5천원을 주기도 하고... 술 못 먹으면 콜라를 먹든지 나같이 술을 마실 줄 알면 맥주라도 몇 잔 사놓고 먹는데, 그게 없을 때는 참 나빠... 가고 싶어도 없어졌다, 내 그 전에 있을 때에는 저 ○○○ (클럽)라는 데 다녔는데... 인제 24살, 그 남자가 53년생이었는데 (고객 이었던) 애 아버지가 와서 홀을 못 나가게 해. 내일 홀에 가지 마라, 그걸(빚을) 갚아주는 거야, 수천만 원을.

빚을 갚고 아이 아버지인 미군과 지내던 중 대마초법에 단속되어 구형 을 받기도 했다. 한국 근무가 끝나 미국으로 갔던 아이 아버지가 다시 군 산으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거의 1여 년을 살았다. 아이는 주변의 권유 로 두 살 무렵 해외입양을 보냈다. 이후 두서너 명의 여성을 두고 클럽을 운영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 캠프 타운으로 오게 되었다.

애 아버지는 그렇게 됐고(뇌출혈로 사망함)... (몰랐을 때는 프리랜 서로 일했는데) 사회 알고부터는, 이 남자 저 남자가 없어, 애 아버지 하고도 한 5년 세월, 이 남자(한국 남편)랑 8년 보냈어. 그러다 보니 까 그때 나이가 36살이 됐더라고. 29살에 와서 8년을 살았으니. 36살 됐는데, 더 이상 일을 하기 싫고 돈이 있으니까 술장사가 하고 싶더 라고, 집을 팔지를 않고 전세를 샀어, 하튼 그때 아가씨는 직업이 없 고 배운 게 없으니까 미군한테 동거비를 받고 살아야 생활을 하고, 정 똑똑한 여자, 정 못사는 여자들은 친정에다 부쳐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혼자 먹고 그냥 그러고, 술장사를 한다고 ‘그걸 다 버리 는 거야, 과거를 다.’ 16-17, 19살에 나온 과거를 36살에 다 버리는 거 야, 과거를 다 버리고 술장사를 한 거야, 술장사를 했는데 2년 만에 망했어. (필자: 많이 어려우셨어요?) 할 줄 모르니까 애들이 다 해 먹 고...

결혼한(이후 이혼)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현장연구 당 시 그 아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다. 클럽 경영을 그만둔 후 한 회사 건물

청소를 하던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했다. 이후에도 웨이트리스, 아파트 청소 노동을 했는데, 인터뷰 당시 쉬고 있었으며 곧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 회사 건물, 거기 가서 청소 아줌마 땡기는 건데. 그런데서 건강 검진하잖아... 병원에 가서 폐에 뭐가 있는데 재검받으러 왔다 했더니, 예휴... 사서 고생도 하고, 너무나 몰라서 고생도 하고 일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야...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작년. 재작년까지 땡겼지. 아, 그것도 밤 직업이라서 피곤해. 때려치워 버리고 마포질(아파트 청소) 하는 데 갔잖아. 아파트 청소가 낫더라니까, 낮에 일하고 그런 게. 돈은 적어도, 돈이 적든 말든... 홀에는 백년 다녀도 고용보험 안 해줘. 홀에는 월급 40만원에 팁 위주로 살 거든.

언급한 것처럼 그녀의 구술 또한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전 생애에 걸친 노동, 캠프타운에서의 일을 중심으로 한 것은 이동, 미군·한국인을 포함한 남성 파트너와의 관계, 자녀, 현재 삶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정상과 비정상 가족의 구분과 위계적 노동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특정 현상과 사고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 가치 있는 노동과 가치 없는 노동의 구분의 비생산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숙희가 노동자이자 가장으로서 생계를 개척하는 자세는, 관련된 노동의 규모, 액수 등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구술했다는 점에서도 두드러졌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생애사는 팔자, 숙명론과 함께 빈곤과 군사주의가 낳는 운명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삶의 여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정반대로 생계유지를 위한 진취성이 부각되면서 주체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면 숙명론과 희생 담론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과 정체성들(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이 공존한다. 구조와 행위자의 이분법 속에서 전자에 무게가 실린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팔자에 이끌린 희생자가 되지만, 이는 위 구술에서 매 시기 생활의 주체적 행위자, 가족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결혼, 캠프

타운에서의 다양한 층위의 노동행위 포함)로서의 행위성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그녀는 어떤 시기 포주로서 가해자였다는 사실도 피해자 담론이 단편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sup>7)</sup> 둘째, 구조적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를 개척하는 여성들의 태도와 그에 대한 긍·부정이 없는 적응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필자가 이숙희의 생애에 주목한 이유를,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말함으로써 용이하게 인터뷰이의 생애를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의 언술 때문이었다. 클럽 경영 당시 힘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사는 것이) 물론 힘들지. ‘그렇지’, 그래도 그 소파(어려움)를 이기고 나가는 거야, 사기꾼한테는 사기를 맞아가며 이기고 나가고, 도둑놈은 도둑질 당하는 대로 이기고 나가는거.”라는 말을 했다. 또한 한국 술집과 캠프타운에서의 클럽을 비교하면서, “가장 더러운 데가 술집이래,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다 받아줘야 돈이 나온대.”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녀와의 두 번째 인터뷰(2007년) 당시 구술을 마칠 즈음에 했던 것인데, 자신의 삶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필자는 이 언술의 핵심에서 드러난 그녀의 인생을, 남성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여러 노동 행위를 통해 ‘정면으로 가난을 직면하고 맞닥뜨린 저항양식’으로 파악한다(박완서 1999; 김미덕 2007). 이는 미즈와 베로니카(Mies & Veronika 1999)의 ‘힘든 노동이 낳은 풍요로움(abundance of

7) 그녀와 고용되었던 여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없었고, 그 여성들이 경제적 이윤을 더 많이 가졌다고만 평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존 연구와 채무 속박관계의 보편적 구조를 보았을 때 가해자라는 표현을 썼다. 관련해서 그녀의 구술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존 사회인식에 비취 부정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무척 상세하게,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한 채 구술했다는 점이다. 입장은 캠프타운에서의 생활, 결혼 등의 성 산업에서의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에 걸친 여러 일들을 부정과 긍정적 해석 없이 진행했다는 의미이며, 이 점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에서도 나타났던 것이다. 다만 생애사에서 포주로서의 일을 언급한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 경우 이를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녀는 실제로 “진세를 얻어 아가씨를 고용해서” 클럽 주인이자 포주로서 일했는데 포주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부정적인 사실을 일부러 숨기면서 이야기했다기보다 성적 폭력과 같은 희생 담론에 적용되는 일 또한 과장이나 이해를 구하는 걸이 아닌 것과 같은, 동일한 수위의 걸이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보였다.

hard labor)', 박완서의 (가난을 체현한 여성 노동자의) '소명으로서의 가난'이라는 언술이 갖는 통찰에 힘입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구조적 폭력에서 사람들에게 놓인 일상과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뜻한다(김미덕 2007).<sup>8)</sup>

이숙희의 생애는 유년 시절부터 빈곤이라는 상황에서 모든 행위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의 식모, 아이보게, 식당 서빙 그리고 캠프타운에서의 일을 하게 되었다. 노동의 젠더화를 극명하게 볼 수 있으며, 주체성 문제를 생각해 보면 빈곤이라는 것이 구조적 문제로서 캠프타운에서의 일이 급작스러운 극적인 계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황적이고 점진적이었는 점에서 일개인에게 과한 책임을 둘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들이 성 산업, 캠프타운을 벗어나는 것을 주체성의 발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과대 해석이며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주체성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Agustín 2005; Kim 2009; 김미덕 2013c). 더욱 중요하게 앞의 구술에서 보이고 있듯이, 여성들의 행위성이란 구조적 제약에서 어떤 직업을, 어떤 방식으로 행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내리게 되는 결정과 판단에서 발현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캠프타운에서의 일을 그만두거나 극적이고 가시적이며 집단적인 형태의 저항 양식을 염두하는 것은, 여성들의 삶에 대한 표피적인 이해이며 계급화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숙희의 행위성은 노동에 대한 입장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두 번

8) 가난을 피하거나 굴하지 않고 이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저항 양식이라는 표현은 박완서의 단편소설 "도둑맞은 가난"(1999[1975])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 소설의 배경은 1970년대이며 주인공은 성 산업 종사 여성이 아니라 젊은 여성 노동자이다. 그녀의 가족은 본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모든 가족이 자살을 했고 주인공은 여공이 되었다. 박완서는 가난에 좌절하거나 죽음으로 회피하지 않고 이를 기꺼이 수용하면서 가난을 소명이라고 선언한 주인공을 통해, 노동계급 여성의 삶이 숙명이나 팔자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인공의 가족이 자살을 결정함으로써 '저항을 극화'시킨 것 같지만 주인공(박완서)이 잘 지적한 것처럼, 실은 가난에 굴복한 것이며 바로 주인공이 일상에서 가난의 폭력과 고통을 다스림으로써(domestication) 적극적으로 저항을 수행한 것이다(김미덕 2007, 16-17).

째 인터뷰 말미에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신문 보면 '많어', 일자리. 자기네들이 안 생긴 게 그러지. 벼룩시장 같은데 보면 있어. (필자: 임금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50만원', 그래도 괜찮아 열심히 일하고, 건강 찾고, 일하면 건강해져. 돈이 안 많더라고, 그 대신 조금해. 8시 반에 해서 3시 반에 끝나. 4시에 퇴근하거든 집에 오면 5시야. 매일, 8시 반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고 옷 갈아입고 4시에 퇴근하고. 근데 후에는 40만원, 부수입까지 말로는 돈 백만원... 지금 경기가 없으니까 안되지만은... 그게 장난이 아니어,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데. 어휴.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저녁 때 운동하고 새벽에 교회 가고.

다시 한 번 이러한 생활의 역동성을 살펴보면 팔자나 운명이라는 언술이 빈곤한 노년 여성에게, 그리고 특정 노동에 부여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팔자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 '구별의 재생산'을 통한 지식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팔자나 운명이라는 언어가 수동성, 주체성이 결여된 어쩔 수 없는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캠프타운 여성에게 부여된다는 것은 그들이 본래 그러한 팔자 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팔자 담론 속에 이미 그들이 존재하도록 위치 짓는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계속 암시하고 있듯이 이 속에서 여성들의 삶은 기능적으로 파편화되고, 정리가 가능한 단순한 삶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타자화된 지식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스스로의 발화에서도 대중적인 계급화된 시선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최현숙(2013)이 세 명의 고령의 구술자와 함께 엮은 저서에서 한 구술자가 과거 캠프타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고향인 평양에서 우연히 떠나게 된 후 결혼을 했지만 곧 남편이 자살을 하고, 외아들들 목사로 교육시켰다. 그리고 필자가 만난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비공식 노동을 했다. 고향인 평양에서는 성냥 공장, 전매국 담배 공장, 고무 공장, 피복 공장, 봉천 피복 공장에서 일했고, 이후 서울에서는 시누네 살림집과 바에서 식모 겸 잡일, 과일 행사, 캠프타운에서 옷장사 행사, 미제 물건 장사, 미군 텐스홀 텐스와 성매매, 미군과의 동거,

과출부로 일했고, 현재는 작은 집의 가게세 수입과 국민기초수급으로 생활하고 있다(최현숙 2013, 117).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을 평한다: “남자, 섹스, 가정, 그런 거가 나한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저 내 인생 내가 헤쳐 나가야 한다... 그걸로 산 거야”(최현숙 2013, 86). 이 짧은 언술은 가장 단적으로 여성들의 성애, 정상 가족 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것이 사회 규범과의 불일치에 대한 불편함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어려운 조건을 스스로 개척한 데서 나오는 위로이자 자기 평가이다(김미덕 2014a).

(피해자를 위한다는) 보호자(연구진과 활동가)가 가해자로 둔갑하면서 피해자가 이중의 억울함을 겪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다스(2007)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피해자에게 삶은 아마도 과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통에 대한 답론은 희생자가 삶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피해자를 위한다는 선의의 명목으로 보호자나 대변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가하는 이중 피해에 대한 그녀의 비판과 고통에 대한 답론의 방향에 대한 제시는 두 말할 것이 없이 타당하다. 그런데 실제로 (구조적, 직간접적 폭력의) 피해자들에게도 삶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V. 요약과 결론

캠프타운 성매매에 대한 답론은 반미 기조의 민족주의 답론, 여성주의 학계에서의 여성들의 고통과 빈곤,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의 희생자라는 답론이 있다. 그리고 성 산업 자체, 여성들의 열악한 환경에 초점을 둔 연구들과 캠프타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들이 있다. 최근에 여성들의 구술에 바탕을 둔 연구나 자서전, 증언록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연구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주류 지식 프레임에서 캠프타운 여성은 성매매, 외국 군인과의 관계를 통한 생활과 삶에 대한 이해가 주를 이룬다. 이 글은 숙명론을 포함한 피해자 담론과 성애의 물신화 현상은 여성

들에 대한 피상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여성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장연구를 통한 참여관찰과 인터뷰, 사실주의 문학작품, 신문기사,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글은 성 산업 연구에 대한 전형적인 방법론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장에서 목격한 두 가지 특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먼저 여성들의 삶을 성이라는 렌즈에 고착시킨 성애의 물신화, 성 산업 자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이들에 대한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지식형태이다. 그 내용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이는 주변부 사회그룹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현장조사에서 목격한 첫 번째 특징은 여성들의 구술 생애가 미군, 캠프타운에서의 일 자체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노동 경험, 적응, 현재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구술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필자의 발견은 성 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 캠프타운에서 생활하게 된 계기와 노동, 경제적 어려움, 평생 동안 여러 비공식적인 직업을 거친다는 사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평범한 사실들’에 대해 어떤 해석과 이론화가 어려웠던 것은 성매매, 외국군 혹은 정반대에서 여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강조만으로 캠프타운 여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인터뷰에서의 느낌과 발화의 결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자신을 성 노동자로 규정하지도,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이를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시간의 적극적·긍정적 역할, 현재 클럽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외부와는 다른 이해, 적응 등이 있다. 이 글은 여성들 일생의 궤적으로 보았을 때 캠프타운에서의 일은 여성들이 거친 여러 비공식, 임시직의 일환이었으며 이 때문에 미군과의 관계, 클럽에서의 일 등이 특별하게 강조될 것도 부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 여기에는 미군과의 법적 결혼도 포함하고 있었는데(또한 한국 남성과의 결혼도 포함한다.), 결혼과 성매매의 이분법이 그렇게 뚜렷한 것이 아니며 성 산업으로의 유입 또한 극적 경험이 아닌 매우 정황적이고 연속적인 삶의 과정이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



에서 그들의 노동계급의 동일시/탈동일시는 성매매 자체에 있다기보다 다양한 노동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며, 사회적 지위의 동일시, 탈동일시, 무시, 적응 등의 여러 정체화 과정을 구성한다.

이 적응이라는 양상은 기존 연구에서 팔자, 한, 숙명론과 혼동된다. 연구 참여자의 상당수가 실제로 팔자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여성들은 전 생애에 걸쳐 빈곤, 성적 폭력, 캠프타운에서의 어려움, 개인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과 폭력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 여성들이 숙명이나 팔자 담론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무색한 삶’을 살았다는(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로서, 가장으로서 정상/비정상 가족, 결혼과 성매매의 이분법이 불분명하고 이는, ‘적응’(Skeggs 1997), ‘힘든 노동으로부터의 풍요로움’(Mies & Veronika 1999), 그리고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청정함/가난한 사람들의 끈질긴 생활력’(박완서 1999[1975], 153)의 언술들이 갖는 통찰을 공유한다. 즉 구조적 제약인 빈곤과 같은 고통은 당연히 폭력이지만 동시에 인내와 회복의 가능성 또한 내재하고 있어 삶을 앞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Das 2007; 김미덕 2007).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기표인 희생자, 혹은 어떤 면에서 행위성이 발현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자라고 하는 경향 모두, 여성들의 현실을 일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이러한 해석(가난한 이들의 역설적 인내와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이 ‘결과적으로 주변부 사회그룹의 고통을 낭만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이나 억압을 자칭하는 경우는 드물고 고통과 억압은 대개 그 수위가 구조적이든 개인적 수위이든 불공정함과 억울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양식은 물질, 심리적 자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필자의 목격을 바탕으로 고령의 연구 참여자들은 가난, 힘든 노동, 인내, 시간의 작용, 끈질긴 생활력이라는(젠더화되고 계급화된) 활용 가능한 대응 및 전복 양식을 수행한다고 분석했다.

성 산업과 관련된 신화는 깊고 복잡하다. 성애의 물신화, 성과 노동의 이분법, 개별 주체가 아닌 집단으로 가정된 노동계급 여성에 대한 이미지, 이들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고통과 폭력은 여성들의 실제적인, 현

제의 삶에 대한 천착을 늘 방해하고 왜곡한다. 즉 그들의 삶과 정체성을 성매매 및 과거의 고통에만 고정시킨 시각은 현재의 삶에 담겨 있는, 관통되어온 어려운 삶과 그 어려움 속에서 배태되는 창조적 힘으로의 전환을 읽지 못하게 한다. 비단 이 글의 연구 참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부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을 재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상상력, 언어, 이론을 비껴나가거나 넘어서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재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갖는 인식의 주관성과 부분성, 특정 사회그룹에 대해 이미 주어진 제도화된 지식의 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화된 지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이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일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미덕 (2007). “한국문학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아메리시안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제2호, pp. 7-54.
- \_\_\_\_\_ (2013a). “인류학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46집, 제1호, pp. 3-41.
- \_\_\_\_\_ (2013b). “공감, 정체성, 탈동일시.” 『사회와 철학』, 제26집, pp. 317-354.
- \_\_\_\_\_ (2013c). “미국 캠프타운 (한국)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46집, 제3호, pp. 41-82.
- \_\_\_\_\_ (2014a). “구술의 힘.” 『실천문학』, 봄호, pp. 437-440.
- \_\_\_\_\_ (2014b). “주한미군 기지 정치(Base Politics) 연구에 대한 검토.” 『아태연구』, 제21권, 제1호, pp. 109-141.
- 김석하 (1991). 『생존의 사각지대』. 서울: 글사랑.
- 김연자 (2005).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서울: 삼인.
- 김정자·김현선 (2013).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서울: 한울 아카데미.
- 두레방 (2005). 『기지촌지역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원 사례집』. 경기도: 두레방.
- \_\_\_\_\_ (2007).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 경기도: 두레방.
- 박완서 (1999 [1975]). “도둑맞은 가난.” 『어떤 날들이: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1』. 서울: 민음사, pp. 141-158.
- \_\_\_\_\_ (1999 [1977]). “지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조그만 체험기: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2』. 서울: 민음사, pp. 239-258.
- 백재희 (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 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I am entertainer; I am not sex worker.” 막달레나의 집 편.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용산: 막달레나의 집, pp. 191-228.
- 서병욱 (1985). “기지촌의 PX 경제.” 『월간조선』, 6, pp. 604-622.
- 아마스타 영애 (2012). “한국의 성매매 정책의 개관.” 송연옥·김영 편. 『군대와 성 폭력』. 박해순 역. 서울: 선인, pp. 331-379.
- 연분홍치마 (2005). 『마마상 Remember Me This Way 못다한 이야기』. 팜플릿.
- 오지연 (1997). “미국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주변적 문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 (2007).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1960).” 『한국여성학』, 제24권, 제3호, pp. 5-48.

- \_\_\_\_\_ (2011). “기지촌 여성의 경험과 윤리적 재현의 불/가능성.” 『여성학논집』, 제28집, 제1호, pp. 79-120.
- 이임하 (2004). 『여성 전쟁을 넘어서다』. 서울: 서해문집.
- 이용인 (1965). “특수윤락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아시아여성연구』, 제4권, pp. 193-207.
- 이희숙 (1991). “기지촌 윤락여성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일 (1995 [1972]). “아메리카.” 『한국소설문학대계 65』. 서울: 동아출판사, pp. 352-430.
- 최현숙 (2013). 『친당하고 지옥이 그만큼 청하가 날라나』. 서울: 이매진.
- Agustin, Laura (2005). “Still Challenging ‘Place’.” Wendy Harcourt & Arturo Escobar (eds). *Women and the Politics of Place*. CT: Kumarian Press Inc., pp. 221-233.
- Behar, Ruth (1993). *Translated Woman: Crossing the Border with Esperanza's Story*. Boston: Beacon Press.
- Cheng, Sea-Ling (2002). “Transnational Desires: Trafficked Filipinas in US Military Camp Towns in South Korea.” Ph.D. Diss., University of Oxford.
- Cronstadt, Carl and Eli Tov (1978). *Multinational Sex: Feminist Roots of the South Korean Crisis*. Tokyo: E. Tov.
- Daniels, Kay (ed.). (1984). *So Much Hard Work*. Sydney: Fontana Books.
- Das, Veena (2007). *Life and Word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nloe, Cynthia (2000).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ernandes, Leela (2003). *Transforming Feminist Practice*. SF: Aunt Lute Books.
- Hall, Stuart (1996). “Introduction: Who Needs ‘Identity’?” Stuart Hall & Paul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and CA: Sage, pp. 1-17.
- Höhn, Maria & Moon, Seungsook (2010). *Over There: Living with the U.S. military Empire from World War Two to the Present*. NC: Duke University Press.
- Kim, Miduk (2009). “Nationalist Narratives and Everyday Subversions: Korean Women and Military Men in U.S. Camp Towns.” Ph. D. diss., Rutgers

- University.
- Lee, Imha (2006). "The Korean War and the Role of Wome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9. No. 2, pp. 89-110.
- Mies, Maria & Bennholdt-Thomsen, Veronika (1999). *The Subsistence Perspective*. London and NY: Zed Books.
- Minh-ha, Trinh T. (1989). *Woman, Native, Other: Writing Postcoloniality and Feminism*.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of Press.
- \_\_\_\_\_. (2009). *SacredSecular*. NY and London: Routledge.
- Moon, Katharine H.S. (1997).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Narayan, Uma (1988). "Working Together Across Differences." *Hypatia*. Vol. 3. No. 2, pp. 31-47.
- Nussbaum, Martha (1988). "Love's Knowledge." Brian P. McLaughlin & Amélie Oksenberg Rorty (ed.). *Perspective on Self-Deception*.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487-514.
- Radhakrishnan, Rajagopalan (1994). "Is the Ethnic 'Authentic' in the Diaspora?" Karin Aguilar-San Juan (eds.). *The State of Asian America: Activism and Resistance in the 1990s*. Boston and MA: South End Press, pp. 219-234.
- Schwartz-Shea, Peregrine and Yanow, Dvora (2012). *Interpretive Research Design: Concepts and Processes*. London and NY: Routledge.
- Skeggs, Beverley (1997). *Formations of Class and Gender*. London and CA: Sage.
- Toulmin, Stephen (2001). *Return to Reason*. London a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kowitz, Judith R. (1980). *Prostitution and Victorian Society*. London an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ea, Sallie (2005). "Labour of Love: Filipina Entertainer's Narratives of Romance and Relationship with GIs in US Military Camp Towns in Kore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28. No. 6, pp. 456-472.
- \_\_\_\_\_. (2004). "Runaway Brides: Anxieties of Identity among Trafficked Filipina Entertainers in South Kore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Vol. 25. No. 2, pp. 180-197.

- Yoo, Cholin (1993). "Life Histories of Two Korean Women Who Marry American GIs." Ph.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이제는 말할 수 있다-섹스동맹 기지촌 정화운동." MBC. 2003년 2월 9일.
- "그것이 알고 싶다-‘기지촌 할머니, 누가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나?’" SBS. 2006년 10월 21일.
-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1945-2006년)

| 논문투고일 : 2014년 08월 31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9월 05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22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3 (2014)

## **An Ethnographic Study on Korean Women in U.S. Military Camptowns: Work and Identity**

**Miduk Kim**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

This article aims to interpret the material realities of Korean women (mostly 40s-70s) in U.S. camptowns. Based on the field research in 2006 and 2007, this article explores the women's own perceptives on their lives and identity question.

This article started from two findings during the fieldwork research. First, women's narratives were centered on work, adjustment and current situations rather than liaisons with foreign soldiers and sex trade itself. Second, most informants neither identified themselves as sex workers, nor did they deny that they are not sex workers even when they clearly spoke about knowledge of the sex trade.

I have suggested main reasons for their reticence through various forms of dis/identification from social class, sex trade as a form of work throughout their entire lives: Sex trade is work in that it is on the continuum of other informal and temporary jobs. It includes legal marriage to GIs their dis/identification is not grounded on sex trade itself but, rather class and the form of work they exert various forms of identities ranging from identification, dissimulation to disidentification from social positions. Thus the narratives of their past and the experiences of the sex trade is adjustment rather than total denial or shame (by not speaking about the experience of sex trade).

This includes subtle, qualitative transformation such as 'abundance from hard labor' from the subsistence perspective and 'pure vitality from poverty.' It implies that suffering such as poverty involve not only violence but also embed the possibility of recuperation and patience that make them move forward for better life.

▪ Key words: Korean Women in U.S. Camptowns, Fatalism, Work Experience, (Dis)identification of Working Class and Adjustments, (Creative) Power of Suffering/Poverty